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	2020. 7. 27.(월) 총 6매(본문 3, 참고 3)	
담당 부서	모빌리티정책과 택시산업팀	담당자	·과장 박준상, 팀장 박효철, 사무관 김민정, 주무관 최상욱 ·☎ (044) 201-3817, 4770, 4757, 4755	
	생활교통과	담당자	·과장 오송천, 사무관 강준식, 주무관 김민진 ·☎ (044) 201-3797, 3817, 3806	
보 도 일 시		2020년 7월 28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. 27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‘수요응답형 등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’ 성과를 지역 곳곳으로

- 28일 전국 지자체 대상 첫 “생활교통 우수사례 설명회” 개최

- 향후 설명회 정례화·필요 시 지역별 순회설명회 추진 등 지원키로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등 교통 분야의 우수사례를 지자체와 공유하여 전국에 확산하기 위한 설명회를 7월 28일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설명회는 모빌리티·주차 등 교통 분야의 우수사례를 지역 곳곳으로 확산하여 교통 소외지역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우수한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,
 - 공공형 택시 사업,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인 ‘셔클’, ‘I-MOD’ 서비스, 주차공유사업 등 우수사례에 대하여 관련 지자체(금천구), 연구기관(한국교통연구원), 서비스업체(현대차)에서 설명할 예정이다.
- 먼저,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최소 요금의 택시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형 택시사업(100원 택시 등)의 경우,

- 한국교통연구원 연구결과, '19년 국토부 지원 50개 市 약 214만 명이용기준 통행요금 절감·이동시간 절감 등 직접효과 약 170억 원, 외출횟수 증가(평균 7.4회 → 8.5회, 1.1회 증가)에 따른 지역사회 소비 지출 증가 등 간접효과* 약 55억 원으로,

* 의료기관, 생활편의시설, 공공업무, 금융업무 방문횟수 증가에 따른 효과

- 연간 총 225억 원의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, 이는 사업비 집행액 137억 원 대비 1.64배 수준이다.

- 설명회에서는 이해관계조정기구 운영, 투명한 정산 시스템 확보, 최적경로 선정을 위한 민간기업(SKT 티맵서비스) 연계 등과 관련하여 파주시·세종시·신안군의 우수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.

-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인 '셔클'과 'I-MOD'에 대해서는, 현대차에서 서울 은평구와 인천 영종도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한다.

- 셔클 서비스는 앱호출 기반 합승서비스 제공 대형승합택시이며, '19년 11월 정보통신기술(ICT) 규제샌드박스(규제유예제도) 통과 이후, 3개월간('20.2~5) 서울 은평 뉴타운에서 실증사업을 실시하였으며,

- 운행 마지막 주인 12주차에는 2,442건의 호출건수를 기록하는 등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.

- I-MOD 서비스는 기존 버스 정류장을 출·도착지로 하는 수요기반 자율경로 운송서비스로, '19년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에 선정되어 2개월 간('19.12~20.1) 영종도에서 실증사업을 실시하였으며, 영종도 인구의 10.5%인 9,174명의 이용객을 기록하였다.

- 마지막으로 금천구에서 인근주민전용 노상 주차장 등을 일반주민과 공유하는 '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',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활용하는 '개방주차장 지정제도'의 사례를 다른 지자체와 공유할 계획이다.

- 금천구는 향후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사물인터넷(IoT) 센서 설치로 실시간 주차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,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교통 분야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설명회를 정례화할 예정이며, 필요 시 지역별 순회설명회를 추진하여 모빌리티와 주차의 혁신적 서비스가 전파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설명회에서 “국민들의 교통 수요가 다양화·개별화되는 최근의 추세에서, ICT 기술과 결합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이 국민들의 편의와 요구수준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”한다면서,
 - “정부는 편리하고 혁신적인 교통서비스들을 전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·보급하는 한편, 필요한 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택시산업팀 김민정 사무관(☎044-201-475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**추진배경**

- 혁신적 모빌리티 서비스 등 교통분야 전반의 Best Practice를 지자체와 공유하여 전국에 확산

□ **행사계획(안)**

- (時/所) 7.28(화) 14:00~16:00, 세종 청사 회의실(443호)
- (참석)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,
17개 시·도 및 주요 시·군 과장급 등

○ (발표)

- 공공형택시 사업 효과 및 우수사례 (교통연구원)
- 수요응답형 셔틀(셔클) 서비스 실증결과 (현대차)
- 수요응답형 버스(I-MOD) 실증결과 (현대차)
- 주차장 공유사업 사례 (서울 금천구)

* (코로나19 방역수칙) 발열,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설명회 참석 불가, 참석자 간의 간격을 최소 1m 이상 유지 및 전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조치 철저

□ **세부일정(안)**

시 간		내 용	비 고
14:00~14:05	(`5)	인사	국토부
14:05~15:25	(`80)	안건별 발표(4건, 1건당 20분 내외)	교통연구원, 현대차, 금천구
15:25~15:55	(`30)	질의응답	-
15:55~16:00	(`5)	마무리	

참고 2

참고사진



공공형 택시(세종시)



수요응답형 대형승합택시(셔클)



수요응답형 버스(I-MOD)



주차장 공유 사업(금천구)